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7.26~2017.8.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입문(2017년 개정판)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2	불화의비밀	자현	조계종출판사
3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4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5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6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7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8	물흐르고꽃은피네좋은때를놓치지않고사는법)	금강	불광출판사
9	꽃도꽃피우기위해애를쓴다	정목	수오서재
10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화공의 예술혼과 구도 정신 픽션에 담아



푼다리카

신이산 지음
얘기꾼 펴냄
1만 3500원

〈푼다리카〉는 제 1회 법계문학상 당선작이다. 법계문학상은 운문사를 한국 최고의 비구니 전문 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킨 명성 스님의 원력에 의해 제정된 불교문학상이다. '푼다리카'는 '삿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라는 범어서 유래한 말로 '흰 연꽃(白蓮)'이란 뜻이다.

이번 소설 〈푼다리카〉는 허복이라는 청각장애인이 절에서 불화를 배우다 하산한 뒤 수월관음도를 완성한 이야기가 중심 서사를 이룬다. 아마도 여주인공 지소연의 헌신적 도움과 사랑이 없었다면 불화 완성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소설은 허복과 지소연이 부부이자 도반이 돼 사랑과 예술, 그리고 종교적 수행을 위해 정진하는 이야기이다.

허복은 20년간 망월암서 법현에게 불화를 배운 뒤 하산한다. 조만수의 도움으로 지리산 보광사서 머물다 지소연을 만난다. 허복은 단청불사가 끝난 뒤 친구 유종호(지홍)를 찾아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다. 지소연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허복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간다. 고립무원인 허복을 외면하지 못하고 자기 화실로 데려와 함께 지낸다. 지소연은 보광사로 다시 일을 떠나고, 허복은 그녀의 권유에 따라 수월관음도를 그린다. 지소연은 대해심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법현의 전화를 받고 허복과 함께 병원으로 간다. 대해심은 두 사람을 맺어준 뒤 눈을 감는다. 지소연은 대해심 사망 뒤 망월암에 머무는 허복을 찾아간다. 지소연과 허복은 탑돌이를 하며 사랑을 확인한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푼다리카불교미술원을 세운다. 행복한 결혼 생활도 잠시, 지소연은 단청불사 중 세상을 떠난다. 허복은 아내의 극락왕생을 위해 아미타내영도를 그려 아내의 영전에 올린다는게 주 내용이다.

"그때,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마워요, 여보' 약간 쉰 듯하지만 부드러운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다. 얼마나 듣고 싶던 아내의 목소리던가. 허복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한 생각이 벼락처럼 머리를 쳤다. 강한 전류가 온몸을 휘젓고 지나갔다. 불화를 그리자. 아내 혼자 가야 할, 어둡고 무서운 저승길에 등불을 밝혀주자.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문학평론가인 동국대 장영우 교수는 "〈푼다리카〉는 한 불화가가 일생의 걸작을 완성한 과정을 다룬 소설이다. 그 과정서 허복이 만난 여러 인물들, 이를테면 스승 법현과 동갑내기 친구 유종호(지홍), 그리고 아내(지소연)와의 인연이 이리저리 얽히면서 그들 서로가 인생과 예술, 그리고 구도 과정이 진실한 도반 관계라는 점을 암시한 작품"이라며 "이 소설은 우리 소설계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불화를 제재로, 그 세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줌과 동시에 불화에 대한 통념을 깨뜨리는 새로운 그림 형태를 제시해 무척 흥미롭다"고 평했다.



소설〈푼다리카〉의 저자 신이산 작가

한 불화가 일생 걸작 완성과정 다뤄
"불화에 대한 통념 깨뜨린 것 흥미"

또한 심사위원들도 심사평을 통해 "법계문학상은 운문사를 한국 최고의 비구니 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키며, 비구니 교육과 권익 증진에 평생을 바친 명성 스님의 서원(誓願)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여타의 불교문학상과 달리 신인작가 발굴과 육성을 위한 상"이라며 "여러 절차를 거쳐 상을 제정해 세간에 공포한 시일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장편 소설과 동화 부문 응모작이 예상보다 많았고 작품 수준도 심사위원을 대체로 만족시켰다. 소설과 동화를 나누어 예심위원의 심사를 거친 뒤 본심에 추천된 작품을 몇 차례 독회와 토론을 거쳐 본심 심사위원 의견 일치로 당선작을 뽑았다"고 밝혔다.

한편 저자는 "독자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한 폭의 변상도와 같은 소설'을 쓸 수 있기를 기도한다. 불교문학이라는 거대한 돌탑 속의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되고 싶은 것이 저의 소원"이라고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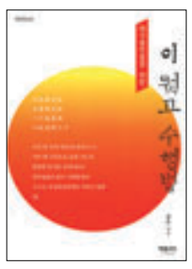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신이산**은?
본명은 신중철(愼重喆)이다. 동국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사 및 (주)두산 부사장을 역임했다. 2013년에 〈불교문예〉 신인상을, 2016년에 제 1회 법계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참선은 내가 참 나 깨닫는 길"

이뭣고 수행법

청운 스님 | 참글세상 펴냄 | 1만 3천원



불교의 궁극목표는 생사를 초탈해 윤회의 굴레서 벗어나 절대 자유 자재권을 얻는 성불에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불교의 본질을 외면하고 기복으로 약 처방전에 매달리게 하여 당당한 본래 부처로서의 삶이 아닌 종노릇만 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이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야 한다. 한 시대의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는 견해나 인식의 고정관념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불자들이 최상승법인 참선문에 들어와 삶속에서 소원성취는 물론 다겁생래로 지어온 업장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간화선인 '이 뭣고' 수행방법을 제시 하고자 부처님 말씀과 선지식들의 주옥같은 선문답과 법문을 내용으로 재가불자들이 급변하는 현대생활 속에서 좀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 10여년간 '이뭣고' 수행
수행법과 선지식들 법문 버무려
"간화선 통한 지혜의 기쁨 전해"

참선은 내가 참나를 깨닫는 길이다. 내가 나를 깨달아서 불조의 혜명을 이어 받음으로서, 생사고에서 벗어나고 다같이 성불로 이어진다.

"시심마?" "이뭣고?" 이 화두가 순일해 지면 익숙한 중생계의 세상사는 저절로 멀어지고, 생소하던 출세간사는 저절로 익숙해져 반야지혜에 계합해 무명업식과 사량하고 계교하든 식정의 중생 삶에서 해탈하고, 지혜광명의 아미타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10여 년의 '이뭣고' 수행 끝에 찾아낸 저자 청운 스님〈사진 · 남양주 선재사 주지〉은 한 살림을 풀어 놓았다. 이것이 무엇인고? 화두를 들면 온갖 중생들의 번뇌가 들끓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한 소식을 풀어 대중에게 지혜를 심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스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지식의 가르침을 빌려 중생들의 지혜를 열어 보고자 한다.

몸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도,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는 것도, 명예와 재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고 죽음을 면하려는 것이며,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요, 부처님의 지혜 목숨을 유지하려는 것이며, 삼계에 뛰어나서 중생을 건지려는 원력 때문이다. 중생은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며 그것이 꿈이며 헛것이며 거짓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또한 중생은 생과 사를 둘로 보는데, 육안으로는 육신밖에 못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법안으로 법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고, 법은 하나이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이는 생사를 하나로 본다. 더 나아가 생사마저도 없다고 한다. 청운 스님도 간화선을 통해 지혜가 열리는 기쁨을 알고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포교의 원력으로 알리고자 했다.

김주일 기자

빙의장애 원인과 개념 등 설명

진리는 의학이다

영탁 스님 지음 | 하이비전 펴냄 | 1만 5천원



문명이 고도화되고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인간의 삶도 큰 변화를 맞는다. 물질 만능주의, 관능적 쾌락주의, 이기주의적 경향 등 각종 병폐적 가치관이 우리 삶의 중심을 뒤흔들고 있다. 그간 우리 사회를 지탱한 도덕과 윤리, 가치관의 심각한 균열이 생긴 것은 인간의 근본 의식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물질과 정신이 상호의지 작용하고 상속 진화해 온 결과로 최근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빙의장애 유전병의 발병은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병원서 빙의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 숫자는 매우 드물고, 정신과 의사들조차도 빙의장애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의학적 치료의 길이 막힌 빙의장애 환자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방황하며 검증되지 않은 민간의 축귀법을 시도하거나, 굿이나 제사 같은 종교적 절차에 의존한다.

저자인 영탁 스님은 유전병인 빙의 치료(완치)뿐 아니라 혼자만의 고통과 외로움,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신음하는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본 책을 펴냈다. 특히 불문(佛門)에 입문한 이래 저자의 유일한 서원인 빙의장애로 고통 받는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다짐을 실현하는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한다.

김주일 기자

염불의 수승함을 낱낱이 밝힌 책!
염불, 정토에 왕생하는 길
염불경 역주
염불은 어떻게 해야 하며, 염불을 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
도경 · 선도 저/이태원 역저/국판/248쪽/12,000원

깨달음은 성불이 아니다!
삼신三身의 성취가 성불이다!
간화선의 실제와 성불의 길
과연 간화선만이 올바른 수행법인가?
간화선의 울타리를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중국불교와 남방불교를 넘나들며 공부하고 수행하고 스스로 점검한 수행이론과 방법, 수행의 과정과 목적을 밝힌 책!
송학 지음/국판 양장/264쪽/15,000원

미국불교
역사 및 주요 종파와 전통에 대한 성찰
BUDDHISM IN AMERICA
리처드 휴지스 시거 지음/장은화 옮김
신국판/590쪽/30,000원
활기차게 발전하고 있는 미국불교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미국 불교의 개략적인 역사, 주요 불교 종파와 전통, 그리고 미국 불교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